



제1호 / '18.4.12(목)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발행처: 교육선전부 | 발행인: 김정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투쟁승리 전진대회로 18년 임단투 시작!

4/12(목) 16시 지부교섭 상견례 개최

2018년 투쟁 선포

지부가 2018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지부는 4월 12일(목) 13시30분 대전노동청 앞에서 확대간부 전진대회를 열어 2018년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노조파괴 분쇄! 노동법 전면 재개정! 구조조정 분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안전한 일터와 삶터 쟁취! 라는 긴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진대회는 많은 확대간부의 참여 속에 힘차게 진행됐다. 지부는 전진대회를 통해 대전노동청에 지역의제 요구안을 전달하고 바로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으로 이동해 지부교섭 상견례까지 이어갔다.

지부 교섭 원칙 합의

김정태 지부장은 “올해 쟁점될 만한 요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부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지회 교섭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각 사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측 대표로 발언한 한온시스템 홍승덕 전무는 “제작년, 작년 대전충북 지부가 좋은 전풍을 만들어왔으니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한다”며 성실하고 진실한 교섭을 약속했다. 노사 양측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교섭원칙에 합의했다.

1. 교섭장소 :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개최

(한온-보수-대한이연-JCC-코스모링크-KDK)

2. 교섭 개최 : 매주 목요일 15시 실시 원칙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

3. 교섭 위원 : 각 사별 임원급을 포함한 2인 이상

4. 교섭 운영 원칙

- 교섭성원 : 6인 이상 참석 (각 사별 1명 이상)
- 간사 : 노(성세경 사무국장), 사(한온 한일수 상무)
- 사회 : 노(JCC지회 권현구 사무장), 사(추후통보)
- 서기 : 노(임성우 교육선전부장), 사(한온 송연호)

지역의제 함께 쟁취하는 임단투

지부는 올해 사업장 임단투와 함께 지역 의제를 쟁취하기 위해 대전노동청과 지자체를 상대로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장 임단협 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해 건강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 것이다.

지부는 올해를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금속노조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지부, 지회교섭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하자

노 : 몇 개월만에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있다. 올해 지부 요구안이 많지 않다. 고작 3개 뿐이다. 상당히 쉬운 교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쟁점될 만한 요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는 지부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바란다. 지부 교섭만 끝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지회 교섭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각 사별로 노력해주면 좋겠다.

사 : 저희도 교섭위원이 많이 바뀌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금년을 시작하고 있다. 올해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건이 많았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계도 현대기아차가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여있다. 각 회사 임원분들과 금년도 경영현황과 작년 실적을 얘기했는데 상당수 회사가 반 이상 역성장을 하거나 적자인 상태다. 사실 과거처럼 고도 성장은 지났다.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사측 경영진만이 아니라 조합하고도 경영에 관련된 문제를 심도있게 의견 나누면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금년 교섭 관련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대충지부가 작년, 재작년 좋은 전통이 있으니 금년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조합도 경영에 조언과 질타를 해주고 같이 회사와 조합이 주어진 목표 달성에 한몸이 돼서 갔으면 한다. 금년 교섭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노력하겠다.

사회 : 지부교섭 원칙에 대해 실무에서 논의된 내용 말씀드리겠다. 작년과 동일하게 교섭 장소는 사업장별로 순회하겠다. 교섭은 매주 목요일 15시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하면 실무에서 조율하겠다. 교섭위원은 사측이 당초 15명이었으나 보쉬 대표이사를 추가해서 16명으로 조정하겠다. 교섭성원은 6인 이상으로 하되 각 사별로 1명 이상 꼭 참석해야 한다는 조

합측 요청에 따라 각 사별 1명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다. 간사는 사측 한온시스템 한일수 상무, 노측 대전충북지부 성세경 사무국장이 맡고, 사회는 윤번제로 하되 회사 측은 추후 정해서 통보하겠다. 노측은 한국JCC지회 권현구 사무장이 맡기로 했다. 서기는 사측 한온시스템 송연호, 노측 대전충북지부 임성우 교섭부장이 하겠다. 회의록은 교섭 개시 전 회사측 서기가 전차 교섭결과 낭독하도록 하겠다. 교섭 중 요구안 추가는 안되며 합의한 사항은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각 사별로 대표이사 불참시는 위임장 제출하기로 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달라. (이의 없음 확인)

노 : 교섭대표위원으로 보쉬와 한온은 사장으로 해야 할 것 같다. 대표이사가 교섭대표로 하시고 나중에 위임장 제출하시면 될 것 같다. 교섭위원은 각 사의 대표가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사 : 그렇게 하겠다.

사회 : 교섭원칙은 지금 논의된 대로 합의한 걸로 하겠다.

노 : 내부 일정상 다음 교섭까지는 16시에 하는 걸로 요청하겠다.

사 : 그렇게 하자.

사회 : 차기 교섭은 4/19(목) 16시 보쉬에서 하겠다.

노 : 별도 요청이 있는데 한온시스템 공장 안에서 교섭은 못하냐? 현장에 들어가야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교육문화관에서 하면 만날 수가 없다. 장소는 한온시스템 공장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한다.

사 :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